



2026. 10. 1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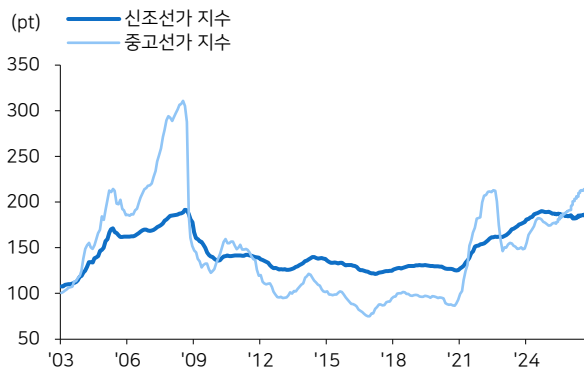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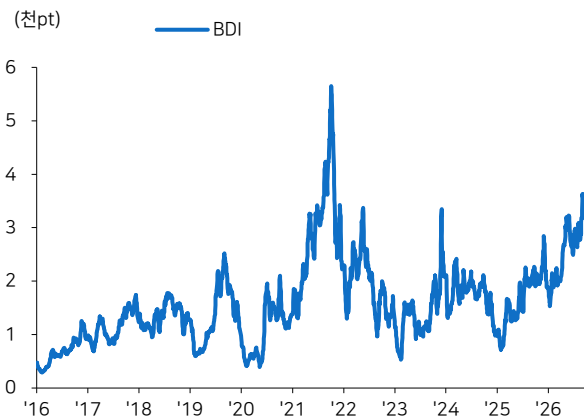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8.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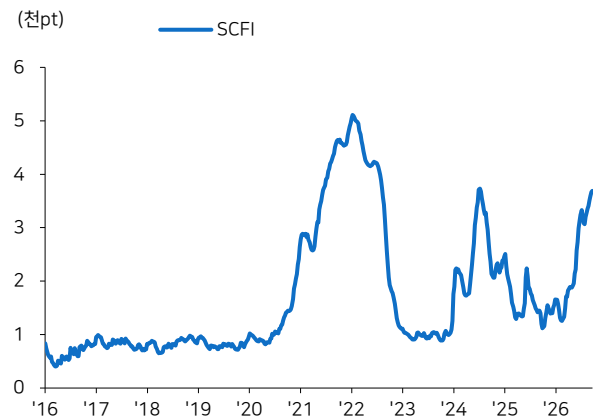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78.0p (-9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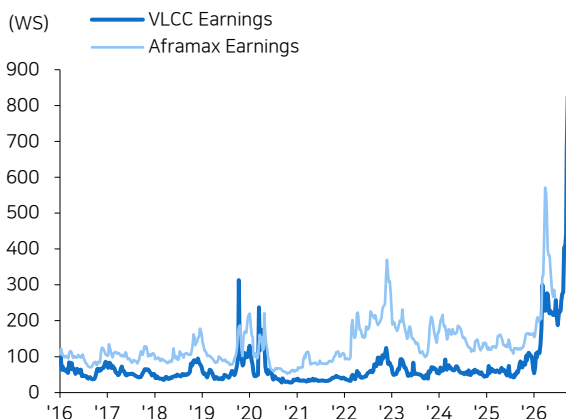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87.8 (+25.7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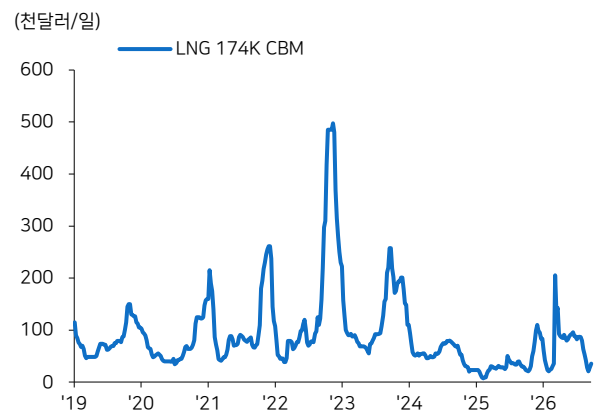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5.0WS (+147.6 WoW)



LNG Spot 운임

35.8천달러 (+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오키스 핵잠 대안" 호주 외교 안보 전문지 K-잠수함 '주목' (더구루)

<https://zrr.kr/L1Knpo>

호주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영국 조선소의 생산 지연으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진 오키스(AUKUS) 잠수함 사업의 대안으로 한국의 KSS-III급 잠수함 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 미국 조선소가 숙련공 부족과 공급망 문제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연간 목표치인 2척보다 낮은 약 1.2척 수준으로 건조하는 가운데, KSS-III는 2032년부터 인도가 가능해 노후 콜린스급 잠수함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알려짐. KSS-III는 VLS를 통한 장거리 타격 능력과 AIP·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장시간 수중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핵잠수함 대비 낮은 비용과 빠른 건조기간, 기술이전 및 현지 건조 협력 가능성 등이 장점으로 거론되며 호주 잠수함 전력 다변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짐.

HD 현대중 '대호김종서함' 진수...해군 이지스함 체계 완성 (머니투데이)

<https://zrr.kr/93jdVz>

HD현대중공업이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하는 함정으로 보도됨.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규모로 최대 30노트의 속력을 갖추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존 세종대왕급에는 없었던 요격 능력 등을 탑재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짐. 2027년 12월 해군 인도 이후 세종대왕급 3척과 정조대왕급 3척 등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이 운용될 예정이며, HD현대중공업은 이 가운데 세종대왕급 2척과 정조대왕급 3척 등 총 5척을 설계· 건조했다고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투자 결정에 인도 국영 조선소 '부지 양보'로 프로젝트 철회 (더구루)

<https://zrr.kr/HiW1sE>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 투투쿠디 지역에 약 40억달러(5조5,200억원)를 투자해 연간 250만~400만GT 규모의 신규 조선소를 설립하는 가운데, 인도 국영 조선소 마자곤 독 조선소(MDL)가 같은 부지에서 추진하던 1,500억루피 규모 조선소 프로젝트를 철회했다고 보도됨. 타밀나두 주정부는 HD현대의 투자 규모와 글로벌 조선 역량을 고려해 해당 부지를 HD현대 프로젝트의 유력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MDL은 대신 안드라프라데시주 두가라자파트남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알려짐. HD현대에는 조선소 완공 시 베트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인도를 네 번째 해외 핵심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일반 상선은 인도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전해짐.

日 미쓰비시重, 1,000 억엔 투자해 조선시설 증설 (해양통신)

<https://zrr.kr/k1S8Kb>

일본 정부가 2035년까지 자국 조선업의 선박 건조능력을 현재의 약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MHI)이 시모노세키 생산거점에 약 1,000억엔을 투자해 건조설비와 핵심 기자재 생산시설을 확충한다고 보도됨. MHI는 2028년까지 선박 건조능력을 현재 대비 25% 확대하고 신규 크레인·부드·생산설비를 도입하는 한편, 약 14만㎡ 부지에 선박 핵심부품 생산공장을 신설해 2030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짐. 메탄올 등 차세대 연료선 수요에 대응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선박 건조와 기자재 생산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시모노세키 조선소는 메탄올 연료 RORO선과 대형 페리, 관공선 등을 건조하는 복합 생산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해짐.

HII Wins U.S. Navy Contract for 10 ROMULUS USVs (Naval News)

<https://zrr.kr/zQ4FVx>

HII가 미 해군의 무인수상함(USV) 대규모 양산·배치를 위한 ROMULUS 사업에 선정되며 실험 단계에서 실전 배치 단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도됨. ROMULUS에는 HII의 자율운항 시스템인 Odyssey ACS가 적용되며, 420해리·28시간 장거리 임무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자율운항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알려짐. HII는 지역 조선소 및 제조업체와 분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체계 생산시설도 확대해, 미 해군의 무인함정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장할 계획으로 전해짐.

FLNG offers 'substantial' opportunity for new entrants, WoodMac says (Upstream)

<https://zrr.kr/V8MLXz>

Wood Mackenzie가 8,000만tpa 이상의 FID 전 단계 FLNG 프로젝트가 대기 중인 가운데, 현재 Golar LNG가 사실상 유일한 임대·운영형 FLNG 사업자로 공급 부족이 시장 확대의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됨. 2023년 이후 7개 FLNG 프로젝트가 승인돼 1,800만 tpa의 생산능력이 추가됐으며, 육상 LNG와의 비용 격차가 축소되면서 해상·고립 가스전 개발을 위한 FLNG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짐. Wood Mackenzie에 따르면 FLNG의 재배치 가능성이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되며 신규 사업자 진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